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종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김세나 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www.dgi.re.kr

지역 대학, 유학생 만족도 확 높여야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결과 발표

- 지난 1월 2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49개교가 인증 대학으로, 부실한 13개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대구경북에서는 2011년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 대학은 전혀 없는 반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5개교로 전국 13개교 중 38.4%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타 권역들과 비교해 대경권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관리가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 입학자원 급감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특히 지방대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학생 인증제를 계기로, 지역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및 대구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현재 총 85,923명으로, 이 중 중국 학생이 58.6%(50,34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재지별로는 재적 외국인 유학생의 52.9%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경권에서는 대구 3.4%(1,929명), 경북 5.3%(3,009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외국에서의 학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 체득을 위해 본국을 떠나 유학한다. 유학국가 및 학교는 졸업 후 본국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하며, 본인이 전공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고, 생활비 및 학비 수준이 적절한 곳으로 선택한다.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어려움

-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외국인 유학생들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그 외에 각 대학의 미흡한 유학생 지원,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미흡,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이 유학생들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

-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업 및 지역정착, 졸업 후 진로 지원을 통해 한국유학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에 유학생이 계속 유입·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 첫째, 유학생들의 한국어 및 학업 능력 향상을 중점 지원한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유학생-한국학생 버디(buddy)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 대학별 학과 단위의 유학생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지자체 차원의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학생들의 학업 및 한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한다.
- 둘째, 유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통·번역 지원 등 유학생 적합형 인턴십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지역 대학생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 셋째, 지역 내 국제교류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지역 대학 간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을 공동 실시하고, 유학생 및 일반 외국인들의 총괄 지원을 위한 대구글로벌교류센터를 조속히 설립한다.
- 넷째, 주요 지역 대학들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국 등지에서 해외 한국유학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감소 추세에 공동 대응하고, 한국 내 주요 유학 목적지로서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한다.

이상의 내용은 이 연구를 “요약” 한 것입니다.

1.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결과 발표

대구경북, 인증 대학은 없고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5개교

- 지난 1월 2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
 -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49개교를 인증 대학으로, 부실한 13개교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선정
- 대구경북에서는 2011년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 대학은 전혀 없는 반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5개교로 전국 13개교 중 38.4%를 차지
 - 수도권 및 타 권역들과 비교해 대경권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관리가 부실하다는 의미

▼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인증 대학(49개교) 명단

지역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기존3개교, 신규4개교)
	기존 (22개교)		'13년 신규 (20개교)		
수도권 (26개교)	1. 건국대 2. 건국대(글로벌) 3. 고려대 4. 서강대 5. 서울대 6. 서울시립대 7. 숙명여대	8. 아주대 9. 연세대 10. 이화여대 11. 인하대 12. 중앙대 13. 한양대	1. 가톨릭대 2. 경희대 3. 동국대 4. 명지대 5. 상명대 6. 서울과학기술대 (구 서울산업대)	7. 서울여대 8. 인천대 9. 한국외국어대 10. 한국산업기술대	1. 동양미래대 2. 인하공업전문대 3. 한양여자대
강원권 (1개교)	14. 연세대(원주)		-		-
충청권 (9개교)	15. 대전대 16. 상명대(천안)	17. 우송대 18. 충북대	11. 건양대 12. 공주대 13. 선문대	14. 한국과학기술원 15. 한국기술교육대	-
호남권 (5개교)	19. 전남대	20. 전북대	16. 제주대		4. 제주관광대(신규) 5. 제주한라대(신규)
대경권	-		-		-
동남권 (8개교)	21. 경상대	22. 한국국제대	17. 경성대 18. 동아대	19. 부산대 20. 부산외국어대	6. 부산과학기술대(신규) 7. 창신대(신규)

▼ 2013년도 비자발급 제한 대학(13개교) 명단

	4년제 대학 (기존3개교, 신규4개교)		전문대학 (신규6개교)	
수도권 (4개교)	1. 수원대 2. 총신대(신규)	3. 협성대(신규)	1. 대림대(신규)	
충청권 (1개교)	—		2. 대원대(신규)	
호남권 (2개교)	4. 예원예술대(신규)		3. 전북과학대(신규)	
대경권 (5개교)	5. 가야대	6. 대구예술대	4. 김천과학대(신규) 5. 대구과학대(신규)	6. 영남이공대(신규)
동남권 (1개교)	7. 경남과학기술대(신규)		—	

주 : 대학명은 가나다 순 기재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4.1.24 (지역별로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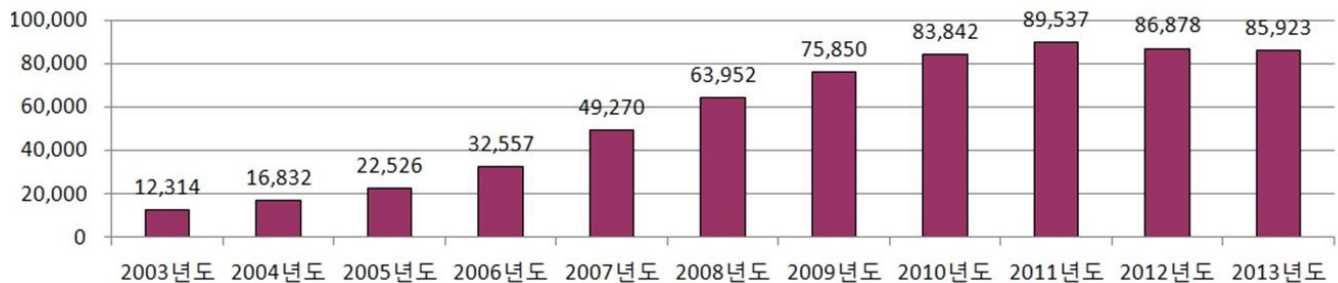
(참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

- 유학생 중도탈락률(배점 35%) 및 불법체류율, 등록금 감면율(20%, 낮을수록 우수), 출신 국가 다양성(15%), 신입유학생 기숙사 수용률(10%), 유학생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 비율 등) 등 10개 지표로 구성
 - 5개 이상 지표에서 상위 절대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증 수여. 비자발급 제한은 4개 기준지표 중 3개 이상에 해당될 때,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추가로 거쳐 최종 선정

- 입학자원 급감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특히 지방대학에서 매우 중요
 - 정부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시장에서 퇴출 우려
 -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에서 대구경북 대학들이 계속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대학 구조개혁 관련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 유학생 인증제를 계기로, 지역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가 시급함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현재 총 85,923명¹⁾
 - 2003년 12,314명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8년 만에 7배가 넘게 증가한 이후, 2012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



자료 : 교육부, 「2013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 (2003~2013년)

- 출신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 아시아 지역이 87.6%로 절대 다수이며, 그 외 북미 4.6%, 유럽 4.4%, 아프리카 1.8% 순
 - 국가별로는 중국이 58.6%(50,343명)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 5.1%, 몽골 4.5%, 베트남 3.5%, 미국 3.1% 순
 - 참고로 중국인 유학생은 2011년 59,317명을 정점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9년 70.5% 이후 감소
 - 유학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중국에 단독 의존하여 급성장했던 그간의 국내 유학생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1) 대학 학위과정 재학생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생 등도 모두 포함한 숫자

▼ 연도별 중국유학생 증감 추이 (2003~2013년)

(단위 :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유학생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중국유학생	5,607	8,677	12,312	19,160	31,829	44,746	53,461	57,783	59,317	55,427	50,343
중국유학생 비율	45.5	51.6	54.7	58.9	64.6	70.4	70.5	68.9	66.2	63.8	58.6

자료 : 교육부, 「2013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유학 형태별로는 자비유학생이 73,420명(85.4%)으로 대다수
 - 학위과정별로는 대학교 학부과정(56.3%), 대학부설 대학원(34.4%), 대학원대학(3.0%), 전문대학(3.2%)에 재학 중 (재적 유학생 기준)
- 소재지별로는 재적 외국인 유학생의 52.9%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
 - 지방에서는 부산이 7.4%로 가장 많고, 대전 6.0%, 충남 5.9% 등 충청권 지역도 강세
 - 대경권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3.4%(1,929명)가 대구에, 5.3%(3,009명)가 경북에 재학 중

(참고) 전 세계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고등교육 단계)

-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지난 30년 간 5배 이상 크게 증가
 - 1975년 80만 명 → 2011년 430만 명
- 세계 외국인 유학생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6.5%), 영국(13.0%), 호주(6.1%), 캐나다(4.7%) 등 영미권 국가와 독일(6.3%), 프랑스(6.2%) 등 유럽 국가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3.5%), 중국(1.8%), 한국(1.5%) 순
- 유학생 최대 송출국은 중국(18.5%)이며, 그 다음은 인도(5.5%)
 -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전 세계 유학생의 52.7%를 차지
-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다음의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 대국으로 급성장
 - 중국이 경제발전과 자국 내 고등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으로 발전한 것이 가장 큰 원인
 -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 저렴한 유학경비, 급속한 경제성장, 한류 등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 등 아시아 학생들의 주요 유학 목적지로 자리매김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OECD 교육지표」

3. 대구경북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실태

유학 목적지 및 학교 선택 과정

- (유학 목적)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외국에서의 학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 채득

- (유학국가 선택) 졸업 후 본국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하며, 본인이 전공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생활비 및 학비 수준이 적절한 곳
- (한국 내 목적지 선택) 출신국가 유학생이 너무 많지 않은 지역(한국어 학습에 방해)으로, 집값 등 생활비가 적절한 곳 중 가급적 대도시
- (학교 선택) 본인 전공분야에서의 경쟁력(1순위), 국내 및 글로벌 랭킹 및 평판도
 - 그 외 영어강의 강도가 많은 정도, 학비 지원 정도 등을 고려
- (영향력 높은 유학 정보원)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주변사람(선배, 지인 등)의 평가
 - 해당 전공학과 경쟁력, 대학 수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 학교 선택에 큰 영향

유학 생활의 주된 어려움

-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
 - 어학 능력의 부족과 그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은 유학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 대구경북 유학생들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음
 - ※ 2013년 대구 16.0%, 경북 13.9% : 전국 평균(23.7%) 및 비수도권 평균(20.7%)보다 낮음
 - ※ 경북대(18.8%), 계명대(6.1%), 영남대(10.4%)

▼ 대구경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TOPIK 4급 이상 취득률

(단위 : 교, %)

지역		대학 수	TOPIK 4급 이상 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전체	183	10.2	14.1	23.7	4.5	4.9	0.1
	수도권	67	13.6	16.2	26.5	4.3	5.4	0.1
	비수도권	116	7.5	12.1	20.7	4.6	4.3	0.2
광역시	서울	36	16.3	17.6	27.4	4.2	5.0	0.1
	부산	12	6.8	11.7	18.6	5.2	5.5	0.2
	대구	2	6.5	11.7	16.0	5.4	3.3	0.1
	인천	3	6.4	11.1	28.0	4.3	7.1	0.1
	광주	8	12.0	15.7	22.9	4.1	3.0	0.2
	대전	11	6.5	7.5	15.4	4.6	4.4	0.1
	울산	2	4.0	8.8	11.4	6.1	8.6	0.2
	경기도	28	6.6	10.8	21.7	4.7	7.3	0.3
	강원도	9	5.6	11.5	21.5	4.0	4.7	0.1
도	충북	11	7.1	15.2	27.0	2.6	4.1	0.4
	충남	16	8.3	15.0	24.2	7.0	5.1	0.2
	전북	7	7.4	14.3	38.2	2.3	3.3	0.2
	전남	8	7.2	9.7	14.5	5.2	3.6	0.6
	경북	18	6.6	10.5	13.9	4.4	4.2	0.3
	경남	9	6.1	8.5	19.5	4.8	3.7	0.4
	제주	3	13.7	12.5	30.5	3.5	4.4	0.2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http://www.academyinfo.go.kr/>)

- 각 전공학과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미흡해 학과공부에 더 어려움을 겪음
 -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홍보는 중시하지만, 입학한 유학생들을 위한 각 학과 단위의 지원 및 예산 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대학본부 중심의 행정 지원에 국한)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미흡
 - 한국어 능력 향상에 제약, 학업의 어려움 가중, 소외감 심화 및 지역정착 미흡
- 졸업 후 취업 문제
 - 한국에서의 인턴십 및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많으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

▼ 대구경북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된 어려움

애로 사항	세부 내용
한국어 습득 및 전공수업 이해	○ 입학 후 2년 정도까지는 전공수업 이해에 어려움을 많이 겪음 – 생활 한국어와 전공수업에 쓰이는 한국어는 다름 ○ 영어강의 강좌 수 부족 – 지방대학에서는 거의 개설되지 않음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미흡	○ 한국어 습득, 전공수업 이해 등에 필요한 도움을 한국 학생들로부터 거의 받지 못함 ○ 9월 입학으로 인해 3월 입학한 한국 동기생들과의 교류가 약함 ○ 유학생들의 외로움,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 심화 ○ 개별 학과 및 교수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돌봄이 미흡
경제적 부담	○ 기본적인 학비 및 생활비는 해결하고 있으나, 유학경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낌 – 용돈 마련, 한국어 습득, 다양한 경험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함 ○ 장학금에 대한 수요 높음
졸업 후 취업 · 진로	○ 한국에서의 인턴십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많음 –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연수 등에 대한 수요 높음 – 그러나 지방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회 자체가 적음

4. 대구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

유학생 지원의 기본 방향

-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역정착·졸업 후 진로 지원을 통해 한국유학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에 유학생이 계속 유입·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부터 이미 감소세 → 지금은 그 간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도기
 - 외형적인 프로모션에만 중점을 둔 유학생 유치정책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이 낮음

한국어 및 학업 능력 향상 지원

- 유학생-한국학생 버디(buddy) 프로그램 확대
 - 입학 1년 이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학과 한국인 학생과의 일대 일 멘토링 및 학습지도(tutoring)를 포함하는 버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 각 대학별 학과 단위의 유학생 지원체제 마련
 - 각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과(경영학과, 한국어학과 등)를 대상으로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업무추진비, 성과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지자체 차원의 장학 프로그램 실시
 - 학업성적 및 한국어 능력(TOPIK 4~5급 이상)과 연계한 소액 장학프로그램 확대
 - 보다 많은 유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 및 한국어 학습 동기 고취

지역사회 알아가기 및 교류 활성화

-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학년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지역체험 기회를 제공
- 다문화가정 봉사 등 유학생들에게 적합한 각종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확대

유학생 인턴십·취업 지원

- 국제무역 관련 지역기업의 통·번역 지원 등 유학생 적합형 인턴십 기회 확대
 - ※ (사례) 대구시 국제통상모니터단 사업
-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 일반 지역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시 세부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

지역 내 국제교류 공동인프라 구축

- 지역 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공동지원 사업 실시
 - 유학생 예비대학(Pre-College) 운영, 학술·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역 알아가기 공동강좌 개설, 외국인 단기 문화연수사업 개최 등
- 지역 내 유학생 및 일반 외국인들의 총괄 지원을 위한 대구글로벌교류센터 설립
 - ※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6개 광역시는 모두 글로벌교류센터 설립·운영 중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 대구경북의 주요 대학들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외 한국유학박람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
 - 한국유학 수요자가 가장 많은 중국을 주 대상으로, 아직 유학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서부 내륙지역 등을 공동 공략해 신 시장 개척
 - 지역의 의료관광, 패션·섬유 등 중국과 관련한 산업·관광과 연계해 종합박람회 개최

내용문의: 김세나 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siera@dgi.re.kr) 053-770-5133